국내최초의기업도시인 태안기업도시 착공

김종학 현대건설 부사장 · 서산개발사업단장

"세계적인 수준의 고품격 관광·레저 도시로 조성할 터"

관광 · 환경 · 첨단 복합 기능이 어우러진 관광 레저형 태안기업도시가 지난 달 24일 착공했다. 태안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8월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06년 12월 개발 계획을 승인받았으며, 최근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 계획안이 승인된, 국내 최초의 기업도시이다.

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· 남면 천수만 B지구 일대에 총 1,464만㎡ 규모로 조성되는 태안기업도시는 총 9조 1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11년까지 도시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고, 2020년까지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.

태안기업도시 건설 책임자인 현대건설 김종학 부사장(서산개발사업단장)은 "고품격 관광 · 레저 도시를 건설해 한 해 1,000만명이 찾는 차별화된 국제도시를 만들겠다"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. 김 부사장은 "특히, 태안기업도시 부지는 지난 1984년 故정주영 명예회장이 서산 간척지 방조제 물막이 공사에 유조선을 투입해 공기를 3년이나 단축시켰던 이른바 '정주영 공법'의 시공 현장이기도 해 더 뜻깊다"고 말했다.

김 부사장은 먼저 태안기업도시의 관광레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 · 업무시설과 주거용지를 줄이고, 관광숙박시설과 테마형수로 유원지를 연계 ·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, 상업 · 업무 시설과 주거 용지는 각각 112만 3,000㎡(7.7%), 24만 5,000㎡(1.7%) 규모이며, 관광 · 숙박 시설은 7개소(24만㎡)로 잡고 있다.

김 부사장이 소개하는 태안기업도시에서 가장 주목할 곳은 '복합 스포츠단지'이다. 국내 최대 규모인 총 6코스, 108홀 규모로 조성될 골프장은 2개 코스를 세계 100대 수준으로 조성, PGA 등 국제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며, 4개 코스는 퍼블릭과 아카데미로 운영할 예정이다. 특히, 품격 높은 대회 개최를 통해 태안기업도시가 국내 최고의 골프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되도록 할 방침이다.

태안기업도시 개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김 부사장은 '아름다운 수변생태거리 조성'을 꼽았다. 465만㎡에 달하는 버드존(bird zone), 생태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사계절의 자연을 느끼며 생태도시 태안을 경험하도록 할 계획이다.

태안기업도시의 두드러진 생태적 특징 중 하나는 약 8㎞에 이르는 인공 수로를 테마파크, 상업 용지, 국제비즈니스단지, 주택단지 등 거의 모든 단지에 인입시켜 도시 전체를 친수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.

김 부사장은 "국제비즈니스단지에는 비즈니스호텔과 컨벤션센터, 기업연수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, 기업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10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2개의 테마파크 사이에 건립해 세계적인 명물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"고 밝혔다. 주거 용지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 쾌적하게 조성할 예정이며, 6개의 친환경 생태 공원은 상업 · 관광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해 휴식 · 문화공간 및 동식물의 생태 공간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.

태안기업도시가 이와 같은 계획아래 건설된다면 태안군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전반의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김 부사장은 "기업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14조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와 16만명에 달하는 고용파급효과는 물론 연간 78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등이 가능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김 부사장은 끝으로 "개발인허가 과정에 서 어려운 난관들이 많았는데 참고 이해해 준 지역주민에게 감사하다"며 "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되는 태안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"이라고 말했다. CJ

김희경 · 기자 · khk@cerik.re.kr